인 사 말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불교의 발전과 일본불교와의 유대와 교류에 힘쓰고 계신 한일불교 문화협의회 임원 및 이사님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77년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가 발족한 이래로 38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긴 기간동안 국민 정서와 정치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문화 교류, 우호 관계가 끊긴 적이 없다는 것은 깊은 양국의 불교관계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기에 계신 이사님과 전현직 임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동반자인 일한불교협의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일한불교 협의회 회장 후지다 스님의 취임과 더불어 전대에 만들어진 튼튼한 교류의 기반 속에 새로운 발전을 논의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 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맞춰 심도 깊고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총회가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제 불교가 사회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여야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불교계의 문제를 관조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해 가는데 있습니다. 눈앞의 일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종단별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포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외형

보다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한국불교의 체계를 다져나간다면 일본불교 나아가 세계불교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종단에서는 최근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연등회와 함께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를 5월 16일 광화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한국불교계의 세계평화 통일에 대한 메시지 전달 및 한국수행법인 간화선의 세계화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소속 각 종단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성심을 다해주신 여러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및 여러 교류의 성공적인 회향에 모두 함께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기 2559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